

濟州道の 民俗놀이

龍淵祈雨祭

第21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出演作品

1980. 10. 29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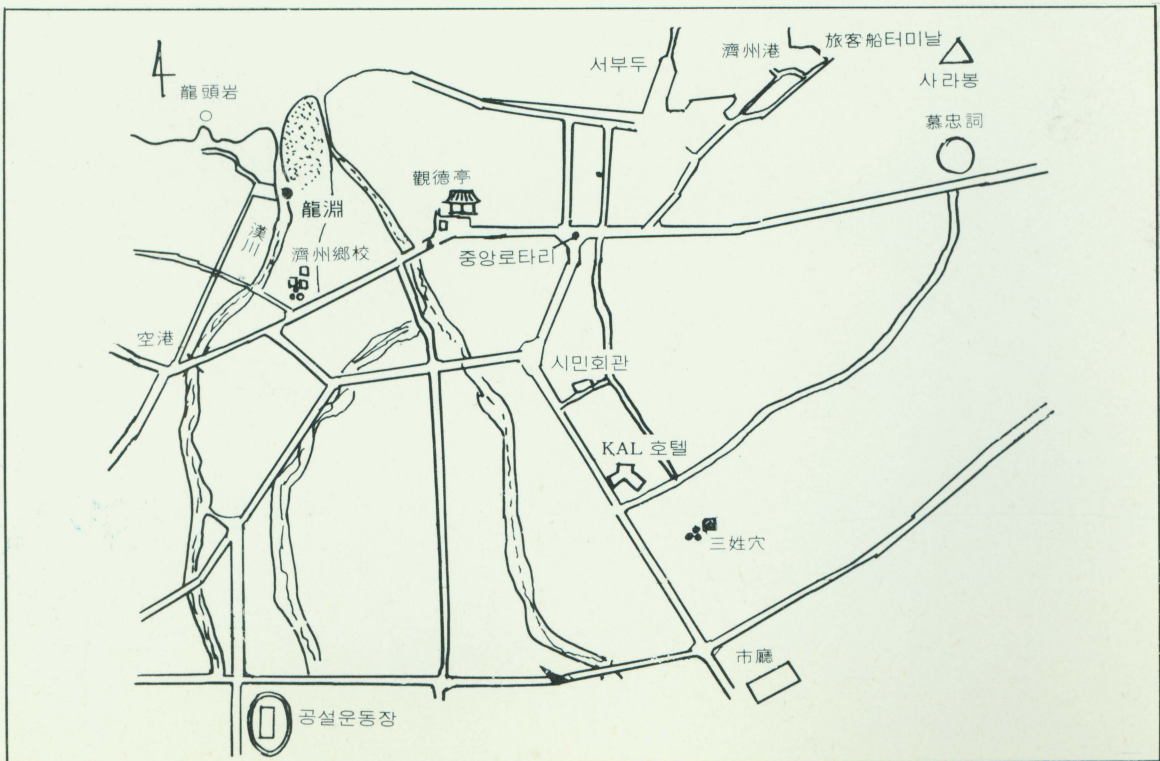
제주도 공설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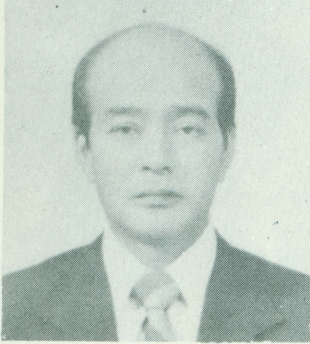
濟 州 市



祈雨祭를 지냈던 龍淵



人事의 말씀



해마다 10月 「文化의 달」이 되면 各地方마다 갖가지 傳統藝術 祝祭가 펼쳐집니다.

先祖의 열과 慧智가 담긴 民俗文化를 繼承·發掘하며, 오늘의 文化中興을 위한 活力素로 삼고있음은 實로 正統性있는 民族文化의 定立에 크게 寄與하고 있습니다.

이만때가 되면, 우리 고장에서도 漢拏文化祭가 베풀어져 온 섬이 祝祭 雰圍氣로 감싸게 되는데, 이번이 그 열아홉번째의 햇불을 밝히게 됩니다.

더구나 이번 機會에는 제21회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우리 濟州市에서 同時에 開催하게 되는것은 처음있는 慶事입니다.

全國 16個 市道, 27個팀의 出演團여러분과 關係人士 그리고 이 民俗藝術競演을 觀覽하러 모이시는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感謝와 歡迎의 뜻을 表합니다.

아울러 全國의 民俗藝術人들이 自己鄉土文化啓發에 힘 기우려 온 勞苦에 對하여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本市에서는 이 大會의 첫날에, 「龍淵祈雨祭」라는 素材의 民俗놀이를 出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濟州市中心街 西쪽 海岸에 자리한 觀光遊園地인 「龍淵」에 얽힌 한 줄거리입니다.

옛날에 旱魃이 極甚하여 民生이 위태로울때 牧使가 어느巫堂을 시켜 이곳에서 祈雨祭를 지내여 甘雨가 쏟아진 傳說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7年度 大統領賞을 받은바 있는 「영감놀이」를 다시한번 示演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두種目 모두가 鄉土色 짙은 民俗놀이입니다.

흔히 우리고장을 三多島 또는 乞人없고, 盜賊없고, 大門이 없다하여 三無島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으며, 獨特한 民俗資源을 비롯한 神秘하고 아름다운 自然資源이 秀麗한 고장이며 強靱하고 勤勉備蓄하는 精神과 人心이 厚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全資源의 觀光資源化, 全域의 觀光地化, 全產業의 觀光産業化를 이루며 世界속의 觀光地로 脚光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本市는 우리고장 空路, 海路의 關門인 同時에 經濟社會·文化등 온 分野의 中樞的 位置를 占하고 있으며 觀光都市·休養都市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全國民俗藝術競演을 뜻있게 觀覽하시며 또한 濟州觀光도 즐기시기 바라며 부디 健康에 有念하여 有益한 旅程이 되기를 祈願하면서 人事에 가름합니다.

感謝합니다.

1980. 10月 29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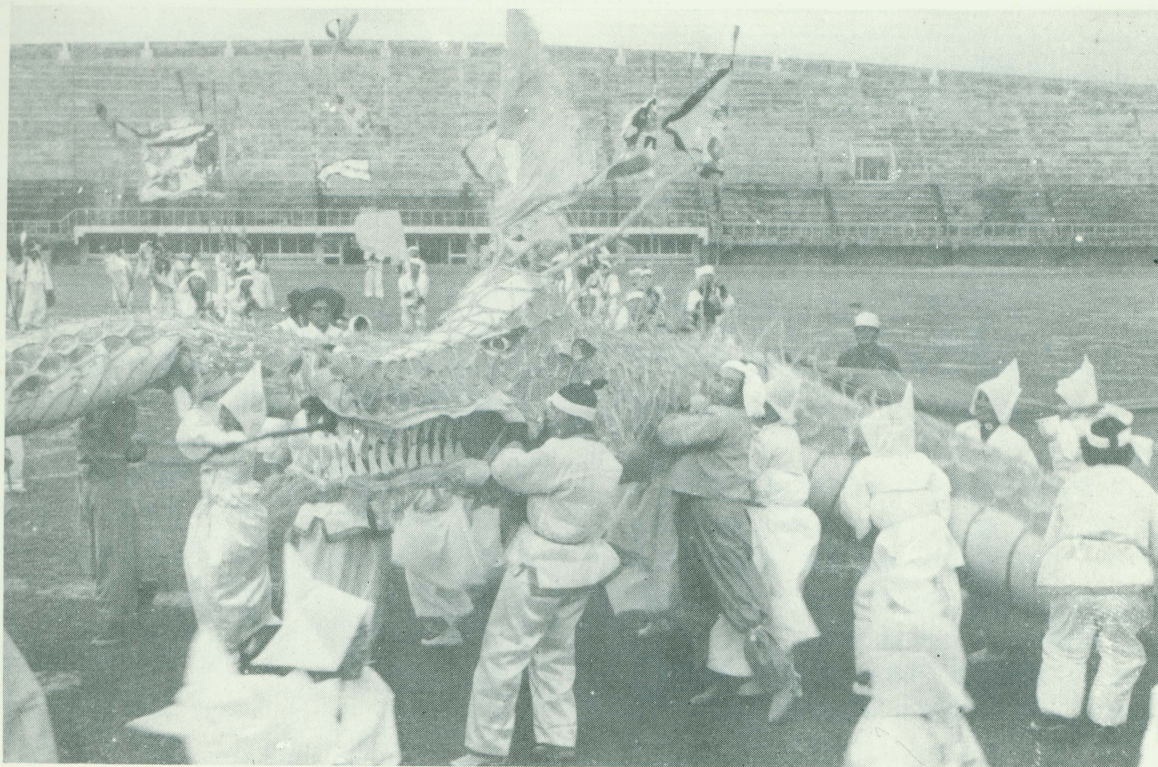
濟州市長 李 君 普



祈雨祭 곳의 全景



祈雨祭에 參禮하는 牧使의 行次



용놀림 場面



初獻官인 牧使의 參拜

龍淵祈雨祭 解説

1. 由來

龍淵은 濟州市 龍潭洞 漢川 下流에 있는 池沼이다. 이 龍淵은 언제나 맑은 물이 샘솟아 淸澄한 못을 이루어 바다에 이어졌고 못의 양쪽 옆은 병풍석이 그림처럼 둘러쳐 絶景을 이루었다.

그 風致가 아름답고 幽玄한 때문인지, 이 龍淵에는 큰 龍이 머물러 산다는 傳說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와 龍淵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고, 이 龍淵가에 堂이 있는데, 그 堂神도 「龍海國大夫人」이라 한다.

또 이 龍淵에는 가뭄이 심할 때 祈雨祭를 올리면 여기의 龍神의 靈驗으로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俗信이 있어 祈雨祭의 登場이 되어 왔다.

그 祈雨祭는 近來에 儒敎式 祭法의 祈雨祭로 바꾸어졌지만, 본래는 巫俗祭法인 굿으로 官民이 合同하여 지내었다.

이 官民合同의 巫俗 祈雨祭굿을 지내게 된 由來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傳說이 있다.

옛날 제주도에 七年大旱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죽게 되었다. 이때 제주성안 무근성에 사는 고대장이라는 큰 무당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내가 龍淵에서 기우제를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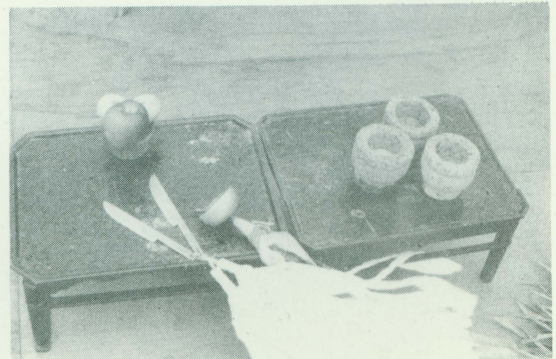
면 반드시 비가 올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이 牧使의 귀에 들어가 고대장은 牧使 앞에 불리어 가게 되었다. 牧使는 고대장에게 기우제를 지내어 비가 오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곧 기우제굿을 하도록 하였다.

고대장은 7일 정성을 하고 龍淵 옆 당밭에 굿청을 차리고 55자의 용을 짚으로 만들어 그 머리는 제상에 올리고 꼬리는 龍淵의 물에 담가서 굿을 시작했다. 초감제를 하여 神을 청해 모시고 7日間의 굿을 끝마쳐 가도 하늘은 청청 맑아 비가 내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고대장은 모든 神들을 돌려보내며 「명천같은 하늘님아, 저는 오늘 동헌 마당으로 들어가 목을 끊겨 죽게 되었습니다」고 애원을 하였는데, 이때 제주성 동쪽 사라봉 위로 주먹만큼한 검은 구름이 떠 오르더니 삼시에 하늘을 덮어 큰 비가 쏟아져 내렸다. 이에 백성들은 그 55자의 용을 메어 춤추며 성안을 돌고 牧使이하 官民들도 백성과 더불어 용을 놀리며 즐겼다 한다.

이와같은 傳說에 연유하여 가뭄이 심할 때는 官民合同으로 龍淵에서 祈雨祭굿을 행하게 되었고, 이 굿을 할 때에는 55자의 용을



뒤 : 탁상 左 : 공깃상 右 : 대령상



신칼과 요령

짚으로 만들어 그 머리를 제상에 올리고 꼬리는 龍淵의 물에 담가서 굿을하고 굿이 끝나면 그 용을 메어 官民이 城內를 돌며 용놀림을 하게 되었다 한다.

이 龍淵祈雨祭가 언제 儒敎式 祭法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한 年代는 알수 없으나, 여기에서 祈雨祭굿을 했던 무당들의 자손이 현재 여러 사람이 있어 祖上들의 傳承을 記憶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도 巫業에 종사하고 있는데, 龍淵에서 祈雨祭굿이 없어지자 집에서 용을 자그마하게 만들어 항아리의 물에 그 꼬리를 담그고 머리를 제상위에 올려 집안에서 굿을 해 왔다고도 말한다.

이러한 무당들의 見聞과 古老들의 記憶을 종합하여 本來의 祈雨祭굿을 復元하여 놓은 것이 바로 이 「龍淵祈雨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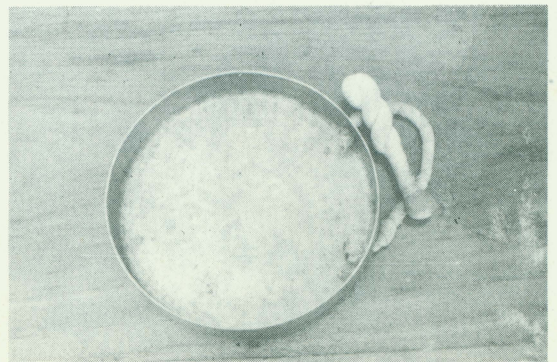
이 龍淵祈雨祭굿은 龍神에게 비를 내려주도록 비는, 우리의 本來의인 祈雨祭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굿의 한 要素로 행했던 용놀림을 再現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현재의 傳承으로 濟州에서 官民 合同으로 행했던 굿은 立春굿과 이 龍淵祈雨祭 굿 두

가지가 전하는데 祈雨祭굿은 立春굿 보다도 먼저 儒式 祭法化 하면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북



대영

2. 構成과 進行

굿을 시작하려면 먼저 큰대를 세우고 祭床을 차려 놓는다. 큰대란 긴대에 통기를 달아 세우고 그 좌우에 좌뚝기와 우뚝기를 세워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이 큰대앞에 龍王祭床인 탁상을 마련하고 그앞에 공깃상과 대령상을 배치한다. 공깃상은 巫祖神의 祭床이고 대령상은 請神할 때 神을 모셔들이는 祭床이다.

祭場에는 小巫들이 북, 대영, 설쇠 등 樂器를 받아 앉아 준비를 하고 그뒤에 牧使이하 官員들의 行次가 參禮하기 위하여 와서 배치된다.

이런 준비가 끝나면 正裝한 수심방(首巫)이 나서서 굿을 시작하는데 그 順序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1)삼석침 : 全樂器를 세번 쳐 올리는 것. 굿의 시작을 神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

(2)초감제 : 굿하는 사유를 아뢰고 모든 神을 청하여 모시는 祭次로 모든 굿의 初頭에 행하는 基本的인 祭次이다.

(3)요왕맞이 : 龍王이 來臨할 길을 치워 닦아 龍神을 맞아들이고 비를 내려 주시도록 비는 祭次이다.

(4)도진 : 神을 돌려보내는 祭次.

(5)용놀림 : 55자 용을 메고 城內를 돌며 즐겁게 놀리는 과정.

이와같은 順序로 構成되어 있는데 초감제부터 조금 자세히 進行過程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감제

①베포도업침 : 굿하는 장소를 알리기 위한 歷史, 地理의 간단한 說明을 노래하고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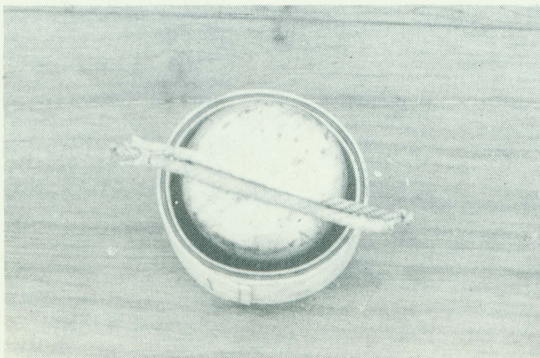
②날과 국섬김 :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說明하는 辭說을 노래하고 춤을 춘다.

③연유담음 : 굿하는 사유를 告하는 辭說을 노래하고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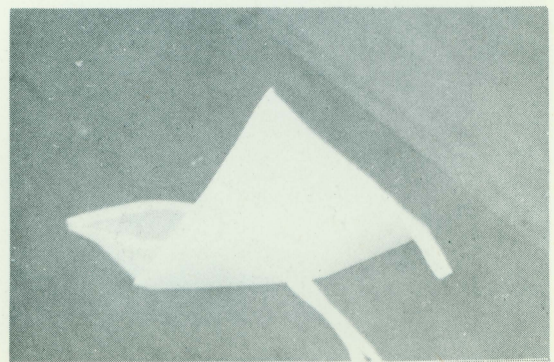
④군문열림 : 神을 下降시키기 위해 神域의 문을 여는 辭說을 노래하고 도랑춤을 춘다. 도랑춤이란 左右로 팽팽 돌며 요란스럽게 추는 亂舞이다.

⑤신청례 : 문을 열었으니 神을 청해 들이는 辭說을 노래하고 청하는 춤을 춘다.

⑥정대우 : 下降한 神들을 祭床에 모셔 앉히는 대목이다. 神을 청해 앉히는 辭說을 노래하고 神을 업어 모셔들이는 춤을 춘다.



설쇠



송낙

神을 청해 앉히면 濟州牧使, 大靜縣監, 旌義縣監, 三獻官이 參拜하고 祈願한다.

⑦ 산밭아 분부사됨 : 신칼로 짐을 치고 降雨與否를 豫言한다.

(2) 요왕맞이

① 요왕질 침 : 龍神이 來臨할 길을 깨끗이 치워 닦아서 龍神을 맞아 들이는 過程이다. 푸른대를 두줄로 세워 龍王의 길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進行해 간다.

○ 좌우뚝길 돌아봄 : 龍神님이 오시는 좌우뚝길을 돌아보자는 辭說을 노래하고 돌아보는 춤을 춘다.

○ 언월도로 베기 : 길에는 海藻類가 무성하니 이것을 베자고 노래하여 베는 춤을 춘다.

○ 작대기로 치우기 : 베어놓은 海藻類를 치우자고 노래하고 치우는 춤을 춘다.

○ 돌치우기 : 치워놓은 길에 구르는 돌을 치우자고 노래하고 돌을 골려 치운다.

○ 밟아 고르기 : 길이 울퉁불퉁하니 평평하게 고르자고 노래하고 발로 밟아 고르는 춤을 춘다.

○ 요왕다리 놓기 : 평평하게 골랐으니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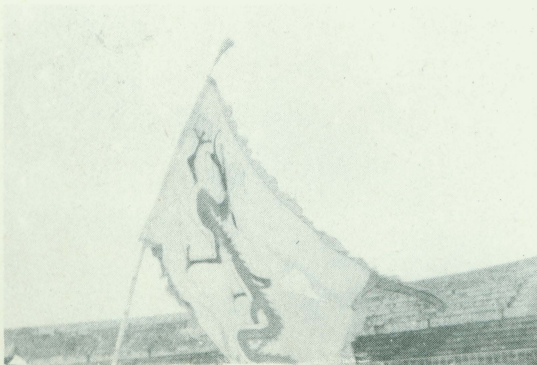
왕다리를 놓자고 노래하고 긴 무명을 깔아 놓는다. 이런 過程을 거쳐 龍神을 맞이하는 것이다.

② 요왕문 열림 : 요왕다리를 놓았더니 요왕문을 열어가자고 한다면서 요왕문을 여는 노래를 부르며 새워놓은 푸른대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 정리한다. 다 열어놓은 요왕문. 곧 대와 요왕길인 무명은 불을 붙여 祈願하면서 살아 올린다.

③ 수록침 : 비를 내려 주도록 바랑춤을 추면서 祈願하는 대목이다.

(3) 도진 : 神을 돌려보내는 辭說의 노래로 끝난다.

(4) 용놀림 : 비가 온다고 일제히 환호를 울리며 용을 메고 성안을 돌며 용을 놀리는 대목이다. 이때 서우젓소리를 부르며 官民이 춤을 추며 용을 놀리는데 이는 龍神을 즐겁게 하여 비를 내리주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青龍旗



白虎旗

3. 歌 詞

(1) 초감제

○ 베포도업침

용연기우제로 천왕베포 지왕베포 인왕 베포, 제청(祭廳) 도업이 됩네다. 제청도 업으로 제이르자. <춤>

○ 군문열림

용연기우제 제청도업 제이르니, 용연용신(龍淵龍神)님 신이 수퍼사저(내려서려고) 하시는데, 천왕초군문(天皇初軍門) 이군문 삼서도군문(三都軍門)이 어찌되며 모릅네다.

신고래대전상(대령상) 저만정(저만큼) 신수퍼다(내어놓아) 하늘옥황 도성문(都城門) 열리웁던 금정지옥술발(요령) 둘러 받아 시군문도 돌아보자. <춤>

시군문 돌아보니 문문마다 감옥성방(監獄刑房) 옥성방 지영이방(營吏房) 감상관(監床官) 매겼구나. 문문마다 인정사정(人情事情) 없이 열릴 수 있소리가. 저승 현폐지전(換幣紙錢) 저인정 걸었더니 시군문 열어 가라 홉네다.

본도신감상 좌절영기(감상기) 무르와다(받아다) 시군도 열려. <도랑춤>

○ 분부사림

시군문 열려 있으옵긴 문 열린 되도 저 인정 주잔(人情酒盞) 지빙겨(넘겨) 드러가며, 초헌관 제주목사님과 이헌관 삼헌관 원님전 분부문안말씀 여쭙와 드립네다
금년 경신년 구월 스무하루 오미시(午未時)에 천지옥황에서 용연용신님이 대우방(大雨方數) 비를 내려줄 듯 하시니, 비가 오시거든 온 제주 백성님과 풍악을 내 울려 천지가 진동하게 용연용신님을 내놀려 주십서 하고 분부는 여쭙와 드립네다.

○ 신청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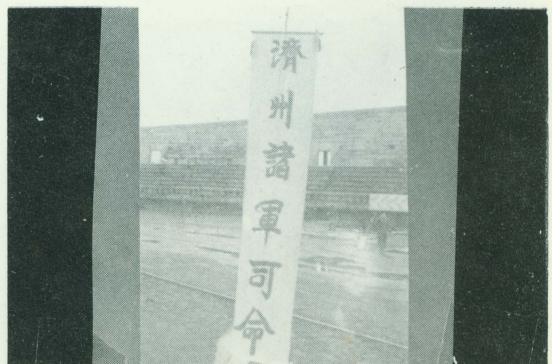
분부는 여쭙와 드러가며 천지옥황님과 수해용신(四海龍神)이 신수퍼사저(내려서려고) 하시는데 제석공신소미(帝釋宮小巫) !세와 천년 먹고 만년 먹을 금강머들 실정미 둘러받아 오리정 신청케로 신메우자 <춤>

○ 정데우

오리정 신청케로 신메와 드렸더니 저만정(저만큼) 신이 수퍼사는 듯 홉네다. 천양낙화 금정옥술발(요령) 본도신감상 좌절영기(감상기) 둘러받아 오리정 정데우



騰蛇旗



司命旗

로 신메우자. <춤>

정테우로 신메왔더니 우앗지고(位 앉히고) 좌앗지라 흡네다. 천왕낙화 금정지옥술발(요령)로 우앗지고 좌앗저 드립네다. <모셔 앉히는 춤>

○비념

천지옥황님과 용연용신님 신이수퍼(下降하시어)있으옵기, 어느 백성이 신전(神)을 청허였느냐 흡거든, 제주 스백리 온백성이 칠년한기(七年旱氣)로 좃아죽게(말라죽게)되므로 용연기우제나 드리면 용연용신님에서 비를 내려주서 온백성 세경땅 농수 풍년이 되여 이 백성 살려 줍서 흐옵고, 제주목스님과 대정원(大靜員)님 정의원(旌義員)님, 삼헌관(三獻官)님이 연주단발(剪瓜斷髮) 신연백무(身嬰白茹)허여 신전(神前)에 열손 부벼(비벼) 축원원정(祝願原情) 드립네다. 삼헌관은 예필출(禮畢出) 시킵네다. <三獻官 參拜하고 물러남>

(2) 요왕맛이

○요왕질 칩

용연용신님 들어서 대우방 비를 내려주

시저 어서 들저 흐시는데, 용연용신질이 어찌되며 모릅네다. 천왕낙화 금정지옥술발 신감상 좌절영기 무르와(반아) 요왕질(龍王질)도 돌아보자. <돌아보는 춤>

요왕질 돌아보니 아끈 둠복(海藻)한 둠복질이여. 어찌흐민 좋으리. 요왕황제국 들어가 은얼도(儼月刀) 타다(받아다) 동서레레(東西로) 비자(베자). <베는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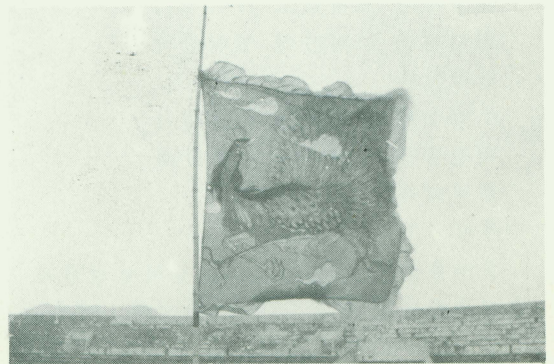
동서레레 비였더니, 동해와당(東海바다)도 서해와당도 미끈하게 자빠져 못쓸 질이여. 요왕황제국(龍王皇帝國) 들어가 무우남(珊瑚樹) 상가지 꺾어다 동서레레 치워. <치우는 춤>

동서레레 치왔더니, 난여 든여 숨은 여질이러. 무서운 질이로다. 그리 맑고 요왕황제국 들어가 은따비 못광이 타다 동서레레 미끈호게 파맛자(파버리자). <파는 춤>

아끈여 한여질은 파 맛았더니, 이도 못쓸 질이로다. 훙은 돌(굵은 돌) 줌진 돌(자질한 돌)이 일어난다. 그리 말고 훙은 돌랑 궁둥이로, 줌진 돌랑 줌삼태(삼태기)로 미끈호게 치워. <돌을 굴러 치움>



金鼓旗



朱雀旗

동서래레 치웠더니, 흙은 돌 누워난 딴
움목호고 줌진 돌 누워난 딴 줌목홀다.
이도 못쓸 칠이로다. 강대장간 모로왜기
(모루) 곱은 발로 편준하게 골라. <뵘아
고르는 춤>

편준하게 골랐더니, 이도 못쓸 질.
용연용신님이 신수퍼사저 흘시는데 원앙
칭칭 요왕드리도 놓으레 가자. <무명을 길
게 깔아 놓음>

○요왕문 열림

용연용신드리 놓았더니, 요왕문도 열어
가라 흡네다. 울랑국(악기 소리) 시름 시
꺼(실어) 일객을 새나우며 요왕문도 열립
네다.

새나새나 새나줍서
동해청용 요왕문도
열려줍서 열려맞자.
서해백용 요왕문도 새나새나
저인정잔 드러가며 열려줍서
열려맞자
남해적용 요왕문도 새나새나
저인정잔 드러가며 열려줍서.
열려맞자.
북해흑용 요왕문도 새나새나
저인정잔 드러가며 열려줍서
열려맞자.
중앙황신 요왕문도 새나새나
저인정잔 드러가며 열려줍서
열려맞자.
수만스천 용신문도 새나새나
저인정잔 드러가며 열려줍서
열려맞자.

○수룩침·도진

용연용신문 열렸더니, 옥황천신님전과
용연용신님전 원불수룩 드리시면 대우방
비가 올듯 흡네다. 원불당 원수룩 천불당
천수룩 췌북 제맛이긋이외다. <바랑춤>

오늘오날 오늘이여
날도좋아 오늘이라
명천곶은 하느님은
비올기색 없어지고
모든신전 행차하고
도진때가 되시는데
신의성방 관가에가
목을바쳐 죽게되고
신선님에 하직하게
되옵네다.
신전님은 돌아삼서
제주백성 죽어죽고
신의아이도 죽어삼시왕에
춤을자게 되었수다
명천곶은 하늘님이
오미시가 되야가도
비올기색 없어지고
제주백성 눈물이야
동안마당 그득하게
시내방천 되옵네다
무심치마시고 비나내려
제주백성 살려줍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손받아 비나이다
용연용신님 비나이다

(3) 용놀림

<사설로> 황수님아, 울지 말고 저 하늘
아래 사라봉을 봅서. 주먹 곶은 먹구름이
떠오릅네다. 동서남북으로 퍼져 갑네다.
쫓인 빗방울이 느립네다. 천지가 진동
하며 비가 온다!

도공원 도황수 명공원 면황수 모두덜
용신님을 어깨에 메고 서문으로 들어가자
풍익으로 놀아보자. <이때부터 서우젯 소
리에 맞추어 용을 메고 놀린다>

어야어야 어야뒤야 어야뒤야 상사뒤야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어서놀자 어서놀자 제주스백리 온백성들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올금년은 경신년 돌은보난 정칠월이요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정칠월은 스무흐를 오미시가 되고보니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용연기우제 친지옥황 용연용신 감동허어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비를주네 비가오네 용신님에서 비가오네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친지가 진동흐고 대우방으로 비가오네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전싱팔저 기박흐신 우리신칭 동간님아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수인닷발 용신님메고 서문으로 어서들자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동안마당이 진동흐게 관원님과 농부님네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목타게 기다리던 대우방수 비를맞이며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동안마당 무너지게 못른목포 축지기며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어서놀자 어서놀자 마음껏 어서놀자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못를땅도 주느라지고 세경땅으로 어서가자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늦인부종씨 어서뿌려 열두시만국 풍년되건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바리바리 친석만석 시만국도 나수와줍서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용신님 머리라근 서문골로 상청골로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상청골로 들어가건 남문골로 들어나가자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남문골로 들어가건 백목골로 들어가자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백목골로 들어가건 옷상갯골로 들어가자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옷상갯골로 들어가건 백목골로 객삿골까지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관덕정에 들어가거든 이오놀로 하직흐자
(후렴) 아아아야 어어어으 어허요
하직이요 가별이요!

편 성

구성 : 박 영 조 (濟州民俗保存會長)

지도 : 안 사 인 위 명 하 (용담동장)

출연 : 제 주민속보존회

출연자명단

No.	성 명	연령	성별	배 역	No.	성 명	연령	성별	배 역
1	강종규	60	남	사 또	31	좌인옥	33	여	대 영
2	김종숙	60	"	원 님	32	김상종	43	남	기 수
3	홍창삼	58	"	" "	33	문두영	59	"	" "
4	양춘화	65	여	이 방	34	전영호	46	"	" "
5	문병교	48	남	형 방	35	강상후	48	"	" "
6	강신숙	25	"	화 덕 장 군	36	백옥임	46	"	" "
7	문순실	20	여	불 초 롱	37	송화태	40	"	" "
8	이용심	19	"	" "	38	김봉여	49	"	" "
9	김윤수	"	"	수 신 방	36	장재익	38	"	" "
10	송진이	24	"	소 무	40	문인석	48	"	" "
11	김영희	25	"	" "	41	김원방	50	"	" "
12	한일춘	34	"	학사 (복)	42	정남홍	46	"	" "
13	김연일	30	"	" "	43	조태환	42	"	" "
14	고복자	34	"	" "	44	김광운	44	"	" "
15	한홍섭	56	"	" "	45	강일문	44	"	" "
16	김보희	54	"	" "	46	양영옥	49	"	" "
17	강치옥	43	"	" "	47	이갑배	47	"	가 마
18	강순선	39	"	실 쇠	48	이근규	36	"	" "
19	이순녀	52	"	" "	49	김종현	44	"	" "
20	김연희	25	"	" "	50	신두천	57	"	" "
21	양정순	48	"	" "	51	박승혁	34	"	" "
22	진부옥	60	"	" "	52	양위진	59	"	사 령
23	김명월	54	"	대 영	53	조창옥	43	"	" "
24	홍명옥	55	"	" "	54	김성우	36	"	" "
25	고차삼	55	"	" "	55	변창근	39	"	" "
26	고행선	49	"	" "	56	김진대	20	"	" "
27	양화진	56	"	" "	57	강만생	38	"	" "
28	양월선	57	"	" "	58	김정진	42	"	" "
29	고연옥	49	"	" "	59	박기두	46	"	" "
30	김순옥	45	"	" "	60	박기호	35	"	" "

No.	성명	연령	성별	배역	No.	성명	연령	성별	배역
61	김상길	36	남	일산	107	이여수	55	여	용메는사람
62	백순봉	29	"	"	108	김태매	56	"	"
63	이형옥	45	"	용농부	109	양원숙	61	"	"
64	진상인	59	"	"	110	김영수	60	"	"
65	강종철	21	"	"	111	안사인	53	"	창
66	신철우	21	"	"	112	양춘일	39	"	용메는사람
67	양동근	48	"	"	113	고화월	53	"	"
68	차병인	69	"	"	124	고춘옥	45	"	"
69	이상언	53	"	"	115	김덕삼	53	"	"
70	김창영	35	"	"	116	양선호	65	"	"
71	이두범	33	"	"	117	양춘희	61	"	"
72	진호찬	40	"	"	118	이태희	48	남	"
73	임정길	49	"	"	119	한순애	53	여	"
74	고태연	48	"	"	120	김성호	58	"	"
75	김정주	42	"	"	121	박순여	56	남	"
76	김경수	40	"	"	122	양도화	67	"	"
77	한운택	36	"	"	123	김일심	54	"	"
78	장순자	32	여	"	124	김순아	39	"	"
79	강순연	38	"	"	125	고대여	62	"	"
80	이혜순	37	"	"	126	박순천	51	"	"
81	임봉연	46	"	"	127	고군찬	61	"	"
82	임복순	56	"	"	128	이명옥	50	여	"
83	이옥희	57	"	"	129	이정자	26	"	"
84	설소심	58	"	"	130	오인숙	55	"	"
85	남행춘	56	"	"	131	한옥녀	66	"	"
86	고순자	55	"	"	132	이진생	60	"	"
87	정옥란	42	"	"	133	문춘생	59	"	"
88	황목매자	40	"	"	134	문순택	58	"	"
89	고이자	33	"	"	135	신용실	62	"	"
90	문옥선	62	"	"	136	조인배	39	"	"
91	홍순여	49	"	"	137	송희금	50	"	"
92	양금석	35	남	"	138	고갑연	58	"	"
93	배수남	51	"	"	139	강여생	43	"	"
94	이성윤	48	"	"	140	현차남	48	"	"
95	김덕수	48	"	"	141	김상옥	50	"	"
96	한생소	45	"	"	142	이옥순	44	"	"
97	김윤보	48	"	"	143	강계생	47	"	"
98	강신숙	43	"	"	144	좌사남	51	"	"
99	이만송	47	"	악기 (북)	145	박영옥	35	"	"
100	청주석	55	"	"	146	이옥녀	49	"	"
101	박신행	38	"	"	147	이순생	51	"	"
102	김계월	49	여	창	148	송경순	59	"	"
103	문정남	38	남	"	149	김월화	65	"	"
104	송창생	62	여	용메는사람	150	고화옥	61	"	"
105	양호생	45	"	"	151	변옥천	40	"	"
106	강도화	58	"	"	152	김상중	43	남	"

오늘은 시간관계로

전날 밤 잠을 못 자고

피로감이 심해서

이제 그만

가려고

가려고

